



달성산림조합, 이웃돕기성금 100만원 기탁 대구달성산림조합(이하 조합)은 즉석에서 모금한 성금 1백만원을 달성군에 기탁했다. 조합은 9일 화원을 명곡체육공원에서 2024년 대구달성산림조합산림사업 안전사고예방 직무교육 및 안전기원제를 지내고 겨울철 산불예방 계몽운동을 했다. 달성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산림가족 모두의 권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달성산림조합장학회를 설립, 매년 지역현원사업의 하나로 장학기금 및 성금 후원을 통해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조여은 기자(사진=달성산림조합제공)

경북도, 도로사업 1조477억 쏟아붓는다

영일만 고속도로 실시설계 지방시대 여는 기반 마련

경북도가 올해 도로 분야에 국비 1조4799억원을 투입해 영일만횡단 고속도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각종 국비보조사업이 구조조정돼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부예산은 전년도 22조4000억원에서 올해는 22조1000억원으로 3000

억원(1.4%)이 줄었다.

도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예산심의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 정부안 1조4597억원을 반영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의원들의 지원으로 202 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도로분야는 지난해 1조3523억원 대비 1276억원(9.4%)이 늘어난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추진될 주요사업 가운데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1350억원)·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남북10축, 2907억원)·포항-안동 국도확장(1353억원)·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192억원)·단산-부석사간 국지도개량(144억원)·구미 제5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166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15년째 경제성 부족으로 보류됐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된 후 지난해 정부예산 125억원에 이어 올해 150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됐다.

신규 착공사업으로 국도 안동 풍산-서후(11.2km, 1776억원), 성주 신남-대구 다사(9.5km, 1395억원), 경주 외동-녹동-문산(4.4km, 571억원), 청송 진보-영양 입암(5.4km, 920억원), 청송 청문-부남 갑연(3.8km, 328억원)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천 양천-대항(7.02km, 1073억원) 구간 등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70억원 등 들어 공사에 들어간다.

영주 첨배어링 국가산단 진입로(2.1km, 422억원)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설계 지구로 10억원이 반영됐다.

준공사업은 국도 안동-영덕(21.9km, 2041억원), 영양-평해(14.65km, 740억원), 군위-의성(14.8km, 479억원), 구미-군위IC(10.5km, 50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안동 용상-고리(15.64km, 3246억원) 등이 1017억원이 투입돼 마무리된다.

이같은 성과는 경북도가 지난해 신규사업 발굴에 전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국회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예산 증액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용 기자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여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오전 산격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4년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9일 시청 앞천출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2024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역소멸 막아라... 짊어진 위기의 그림자

소멸 위기에 처한 대구 서구와 남구, 군위군이 청년 유입에 적극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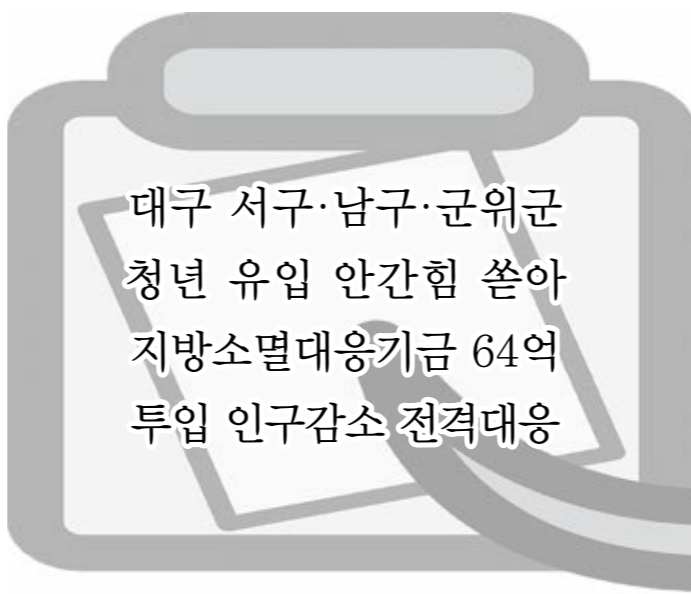
9일 대구 서구와 남구, 군위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64억원씩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평가에서 이들 지자체는 최하인 C등급을 받았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연간 1조원을 투입해 10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맺고 군위읍에 2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1동을 지어



대구 서구·남구·군위군 청년 유입 안간힘 쏟아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투입 인구감소 전격대응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첨단산업단지 등이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헬스앤키즈드림센터'를 건립하고 영산홍 군락지로 유명한 와룡산에 가족쉼터 공간인 '숲하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서구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육아가정 유입을 위한 '키즈앳센터'를 건립한 바 있다.

'청년이 모여드는 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남구는 계명대 대명캠퍼스와 협력해 청년들에게 3D모델링 등 디지털 기술을 지원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 1년 새 2.7배 ↑...보증금 못받았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구 부동산 전문기업인 ㈜벨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 설정등기를 한 전국권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5만2322건으로 전년(1만4175건) 대비 2.69배(3만8147건) 증가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기가 돼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제도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6359건), 경기(1만3199건), 인천(1만17건) 등 수도권이 75%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부산(3267건), 대전(1602건), 대구(1353건) 순이었다. 연령별 임차인은 30대 47%, 20대 이상 21%로 20-30대가 68%를 차지했으며 40대(17%), 50대(9%), 60대 이상(6%)이 뒤를 이었다. 송원배 벨사부 대표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와 강동전세가 속출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대구 중구의회 보선 취소...총선과 함께 치른다

대구 중구의회 보선선거가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위원회의를 열어 오는 31일로 예정된 보선선거를 취소하고 4월10일 제22대 총선 때 치르기로 했

다.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된 데 따른 보선선거는 지난 8일 권경숙 구의원이 복직함에 따라 결원 1명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의원정

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선선거를 해야 하지만 권 의원의 복직으로 기간 내 치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4월 총선 때 보선선거를 치르는 중구 '가' 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2동 등이다.

조응천, “이재명 강압적인 단합 요구 민주주의 말살”

이재명 당 대표 사법리스크 당 끌려가고 있다 맹목하게 더 민주당 조응천 탈당예고



스 요구가 결국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초래하고 당내 민주주의 말살을 야기하고 있다”며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이끌려 500일 동안 당이 끌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아무 말 못하지 않느냐. 국민의힘의 급소는 수직적 당정관계”라며 “바로미터는 공천이다. 대통령 자인공천, 검찰이 판을 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친윤 수직 체제와 친명 단일 체제 정당 뿐”이라며 “가히 신밤 먹을래, 탄밤 먹을래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다. 절망하고 있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다”라며 “남은 여력을 범지주의와 권력을 바로 세우고 비토크라시에 빠져 극한 대립만 하는 우리 정치를 복원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제3차대 신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미래당 대표가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조 의원과 같은 신념의 정치인이 지금 같은 혼란의 시대에 꼭 앞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며 “왜냐하면 지금은 견고한 기성정치의 벽에 누군가는 도전해 구멍을 내야 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벽에 부딪치면 머리가 깨지고 손이 깨질 수도 있다. 그런 상처 때문에 벽을 피하는데, 조 의원이라면 가까이 그 길을 앞장서서 걸을 것”이라며 “저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가까이 조응천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해 조

의원의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 의원을 민주당에서 잃는 건 다 잃는 것”이라며 “원칙과상식이 민주당을 나가는 건 민주당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혹시 모를 탈당 결심을 만류하기 위해 이자리에 왔다”며 “좋은 정치를 위한 조 의원의 진심을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소속된 비례계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탈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은행, 소상공인 돕는다 경북도에 120억원 특별출연

지속되는 고금리 물가상승 경제위기 장기화 소상공인 체감 위기 '최고조'에 달해

실대출 금리 4.41%과 경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이하 경북비팀금) 2차보전 사업(연 2% 2년 간 지원)을 결합하는 상품이 될 수 있게 지난해 부터 전산 시스템을 구축,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기부 정책자금 소진되면 일반보증부 대출(5~6%)로 추진하며, 경북비팀금용 2차보전 사업과 결합하면 3~4%이율 이용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조건이다.

자금 신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AI 콜센터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의 지점을 선택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최고조”라며 “이같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2배의 특별출연을 해준 대구은행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징계의원 의정비 감액·미지급 조례 필요

대구 참여연대, 지방의회 조례 조항없는 의회 많다

회조차 이러한 조례가 없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50%를 감액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며 “가장 문제가 많았기에 가장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도 미루고 있는 중구의회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지경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 중 의회 대부분이 의원의 구속·구금 시에는 의정 활동비를 미지급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결정 시 의정 활동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조항이 있는 의회는 125개, 51%에 그쳤다.

대구지역에서는 동구와 북구의회가 출석정지 의원에 대해 의정 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50% 감액한다. 남구, 달성군, 서구, 달성구 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미경 기자

대구 지방의회들이 징계의원의 의정비를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조례 제정에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는 9일 “대구의 지방의회들이 이러한 조례 조항조차 없는 의회가 많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대구 시의회와 수성구의회, 중구의회, 군위군의회 등 4개의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의회에는 조례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는 조례 제정의 효과로 볼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며 “출석정지 30일 징계받은 의원이 3명, 제명된 의원이 1명, 의원직 상실 의원이 1명이 있는 중구를 비롯해 수성구의회는 물론이고 대구시의

경북선관위, '총선 D-90일' 선거운동 제한

선거일까지 직무상 행위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축사·인사말 '의정'활동 선거구민에게 보고못해

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

9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

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 선거에는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1일까지 비례대표선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11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023년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디딤표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하지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김성용 기자



개고기 보신탕집 없어진다...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목적 개도살 처벌 받아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제석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육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줬다.



“동료교수 강간” 허위 글 50대 여교수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54·여)에게 징역 8월에 집

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후, 같은해 4월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을 바라다준다는 핑계로

집으로 따라왔고 이후 집안으로 들어와(나를) 강간했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짓 사실을 알린 혐의다. 그는 같은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 대학교가 교수의 강간을 덮으려고 한다’, ‘동료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거짓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경북교육청, 에티오피아 디지털 교육 세계화 출발

디지털 교육 세계화
양해각서 체결 위한
‘에티오피아’ 방문...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을 방문한다.

정보화 장비 지원과 교원 정보화 연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9-13일까지 3박 5일의 일정으로 떠났다.

임 교육감은 2024년을 K-EDU K-EDU 따뜻한 경북·세계교육이라는 원년을 선포했다.

방문단은 임종식 교육감 등 경북교육청 관계자 6명과 차준찬 총괄실장 등 APEC 국제교육협력원 관계자 2명으로 구성됐다.

방문은 2024년 신규 교류협력국 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한 현장 실재 파악과 에티오피아 교육 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단은 첫 일정으로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만나 참전용사의 고귀한 용기와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둘째 날에는 현지 교육부를 방문, 베르하누 네가(Berhanu Nega) 장관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

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신품 정보화 장비 △따뜻한 경북-R컴퓨터 따뜻한 경북-R컴퓨터: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을 위해 학교 등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불용 정보화장비의 재자원화·양품화(Reresourced, Recycled, Reusable) 및 협력업체 기증을 통해 확보한 정보화장비

△수업 콘텐츠 △현직 교원 연수 등 교육 정보화 지원과 디지털 교육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교육감은 코테베교육대학교(총장 베하네 메스켈 테나)를 방문해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에티오피아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그는 “K-EDU 세계화 첫걸음을 아프리카 2대 한국전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서 하게 된 걸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이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8년 동안 과테말라공화국과의 교류 협력으로 교육 정보화 환경과 교원 정보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을 포함한 총 2개국을 지원한다. 최준길 기자



경북교육청, “보조금 실시시간으로 점점”...

‘교육정보택’ 도입
교육재정 신뢰 높여

경북교육청이 9일부터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교육정보택)을 전면 도입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정보택’은 교육청의 지방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업무를 전산화한 것이다. 지방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교육청은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때 집행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 보조금의 전용 계좌 예치, 전용 카드를 통한 집행 명세의 시스템 등록,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현황 실시간 점검 등이 가능해지고 보조 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보조 사업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보조금 집행에 필요한 전용 계좌와 카드를 신청하고 교육정보택으로 보조금 교부·정산을 처리하게 된다.

업무처리에 필요한 매뉴얼은 교육정보택 누리집에 올릴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 도입하는 교육정보택으로 보조 사업자의 편의성과 지방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대구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본격 추진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설명회 개최

대구교육청은 2023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화원·구지초, 대구북·평리중을 대상으로 총 4개교, 6개동 개축이다.

지난달 28일 고시, 사업면적은 14,707㎡, 총 사업비는 392억여 원이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실시

약 후 2026년 7월까지 완공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을 통해 학생 중심의 미래학교 공간으로 구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민간자본을 투입, 학교건물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은 이전(Transfer)하되 20년간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급(Lease)하는 방식이다.

대구교육청은 2026년까지 총 20개동을 대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고 있다. 황태용 기자

대입 정시경쟁률 ‘미달’ 59개교...지방대 52개

‘서울 쏠림’ 현상 재확인

정시 경쟁률이 3대 1에 못 미쳐 사실상 미달로 평가받는 지방대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소에도 수도권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9일 종로학원이 지난 6일 종료된 전국 188개 일반대학의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10만3808명 모집에 총 48만497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4.67대 1을 기록했다.

서울권 대학 41개교 평균 경쟁률은 5.79대 1, 경인권 39개교는 5.96대 1로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서울권은 0.01포인트(p) 올라 거의 같았지만 모집인원이 980명 늘었음에도 지원자 수가 5271명 불어나 ‘서울 쏠림’ 현상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미달’로 불리는 3대 1에 못 미친 대학은 전국 188개교 중 59개교(31.4%)였다. 3대 1을 사실상 미달로 보는 이유는 수험생이 가나다군별로 3번까지 지원할 수 있어 타 대학으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률 3대 1 미만 대학 중 52개교(88.1%)가 지방대였고 서울권은 4개교, 경인권은 3개교에 불과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인재 배출 명문학과 위상 우뚝

1996년 창설 후 사법고시 등 1300여명 국가 공무원 양성

계명대 경찰행정학과가 공무원 등 71명의 인재를 배출, 지역의 명문 학과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996년 학과 창설 이후 금년까지 경찰간부후보생 22명, 경찰공무원 1000여 명,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13명(로스쿨 7명), 소방·교정간부후보생, 검찰·법원·교정·보호직 등에 1300여 명의 국가공무원을 배출했다.

교수·연구원·공기업·금융권, 대기업 등에도 활발한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는 성공요소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수진의 열정적인 강의, 입학과

동시에 이뤄지는 직렬별 공무원시험 진로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교과과정 내에 경찰공무원, 검찰·법원·교정·보호·일반직 등 공무원 전 분야에 걸쳐 어떤 시험이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요소가 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유도 단종의 취득을 돕기 위해 전문 유도 교수를 초청해 유도 실기수업을 진행한다.

학교 내외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캠퍼스(캠퍼스 폴리스)제도를 운영, 학생들에게 경찰관으로서의 간접체험과 함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입학 때부터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경찰학, 범죄

학, 법학 등 각 세부전공별 교수들이 각각의 공적 영역별로 집중적으로 지도하면서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고 있다.

자체 고시원인 경시원을 운영함은 물론, 비스스칼라를 비롯한 우수학생 특별장학금 지급 및 교재 지원, 지역경찰서 현장실습, 형사사법기관의 전문영역별 명사 초청특강 등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응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학과장은 “경찰 관련학과로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창설돼 지난 25년 동안 꾸준히 우수 인재 배출에 매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이 지속적인 결실로 나타나 기쁘다”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대구·경북 지난해 23만명 헌혈 참여, 20대가 가장 많아

2022 20만4754명 대비 무려 2만4961명 증가... 대학생 가장 많이 헌혈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23만여명이 헌혈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에 참여한 중 20대가 가장 많았다.

헌혈 참여자 직업군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은 9일 헌혈의 집 동성로센터에서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헌혈실적을 밝혔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총 22만9715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2022년 20만4754명 대비 2만4961명 많은 수준이다.

단체 헌혈실적은 6만1149명, 개인 헌혈실적은 10만8927명, 혈장성분 헌혈실적은 4만1907명, 혈소판 성분 헌혈실적은 1만7732명이다.

2022년 대비 각각 8776명, 4864명, 8239명, 3082명 상승한 실적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8만8909명(39%)으로 가장 많이 헌혈에 참여했다. 60대 이상은 3291명(1%)으로 가장 적었다.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7만3455명(32%)으로 가장 높았다. 종교직이 414명(0.2%)으로 가장 낮았다.

혈액형별로는 A형이 7만6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AB형이 2만5765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서는 헌혈자의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 총 13개(대구 9개, 경북 4개)의 헌혈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대구경북혈액원에서 최대 헌혈실적은 낸 곳은 헌혈의 집 동성로센터다. 2만5920명(연인원)의 헌혈자가 방문했다.

대구경북혈액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월20일 이내에 혈액부족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며 “현재 대구·경북지역 출고 가능한 혈액보유일수(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는 3.8일분이다. 이는 적정 보유량인 5일분 미만인 상황이다. 동절기 시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노동청, 영풍 대표·법인 등 입건

대구고용노동청은 9일 작업하던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영풍 법인과 박영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정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12월6일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겪다 숨졌고, 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는 아르신 가스에 노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

해 생기는 화학물질로 노출되면 혈액의 기능을 방해,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대구노동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영풍 본사와 봉화군 석포제련소 현장 사무실, 석포제련소 등 3곳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유해물질 관련 매뉴얼과 안전보건 자료,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전상기 기자



대구 아파트 입주 전망지수 3개월 만에 반등...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3개월 만에 반등하며 '80선'을 회복했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 따르면 1월 대구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70)보다

12.6 오른 82.6으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전월 무너진 80선이 한달 만에 회복된 것이다. 그러나 입주율은 두달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입주율

은 전월(69.2%)보다 4.9%p 하락한 64.3%로 2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렀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경기침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악재까지 겹쳐 거래절벽이 심화된 것이 미입주 상승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6.58)	▲ 코스닥 (+5.30)
2,561.24	884.64
▲ 엔화 (+1.84)	▼ 유가 (-0.18p)
913.67	1,571.84
▼ 환율 (-1.00)	▼ 금(금) (-0.80)
1,316.00	2,033.50

경북 농식품 세계 먹거리 시장 재패 꿈 달성하나...

경북도 농식품 수출 9억달러 최초 달성! 올해 경북도 농식품 수출 10억달러 목표

경북도의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사상 최초 9억달러를 달성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수출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은 K-경북푸드의 우수한 상품성과 지원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올해 농식품 수출 10억달러를 달성, 미래를 준비하는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경북 농식품이 세계 먹거리 경쟁에서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년 2억7222만달러에서 지난해 9억3314만달러(1조2,200억원)로 11년간 약 3.4배 늘어난 성장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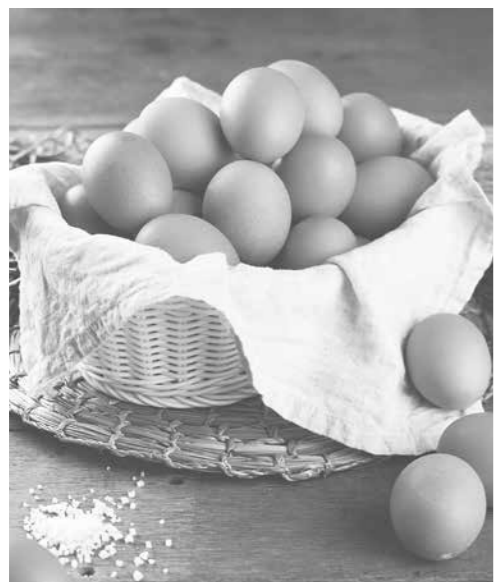
같은 기간 수출 국가와 품목 또한 63개국 203개 품목→146개국 797개로 늘어나 양적으로 성장했다. 품목별로는 포도, 쌀, 참외 등이 크게 성장했다. 포도는 32.4% 증가했고, 3,535만달러, 쌀은 68.7% 증가한 370만달러, 참외는 122.6% 증가해 138만달러를 수출했다. 가공식품 중에는 음료류, 붉은대게살, 주류, 김치, 낙농품 등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음료류는 5.6% 증가한 9,474만달러, 붉은대게살은 17.7% 늘어난 2,735만달러, 주류는 31.0% 증가 2,704만달러, 김치는 1.6% 증가 1,074만달러, 낙농품은 23.2% 증가해 3,193만달러를 달성했다. 도는 이같이 농식품 수출성장세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추진 등으로 생산-유통-판매 전반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 지원정책이 크게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선농산물의 경우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정부 지정(32곳), 도 지정(33곳) 수출단지 및 예비 수출단지(31개소)라는 3단계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인증(FDA, HALAL, KOSHER), 포장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간접지원과 2023년 62회의 해외 판촉 활동을 펼쳤다. 도는 3500만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사인머스켓(포도)뿐만 아니라 소비층이 다양, 수출 잠재력이 큰 고소득 작물인 딸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했다. 2030년 1000만달러까지 수출 성장을 목표로 20곳의 "딸기수출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등 전략품목 개발에 집중,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한다. 가공식품은 안동소주, 음료, 김치 등의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상설판매장 운영 등 해외 판촉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인지도를 높인다. 김성용 기자



계란 한판 7000원 또 넘었다...곧 명절 코앞인데

평년비 18.4% 비싸고 한 달새 1000원 올라 고병원성AI 부상... 산란계농장 확산우려



최근 한 달 동안 계란 한판 가격이 1000원 가까이 뛰면서 7000원대로 올라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한창이고, 설 명절도 한 달 앞두고 있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

르면 지난 7일 기준 계란 한판(특란 30구) 평균 소비자 판매 가격은 7012원으로,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8일 6182원 대비 13.4% 상승했다. 계란은 지난해 지속적인 가격 불안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11월 하순에는 7000원을 넘나들다가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3일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에도 12월 중순까지 폭등세 없이 6000원대 초반대를 유지했다. 연말 수요 증가와 강추위, 폭설 등으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새해 들어 7000원에 근접하더니 기어코 7000원을 넘었다. 평년(5924원)과 비교하면 18.4% 비싸고, 물가 상승폭이 컸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5.3% 높은 수준이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오를 대로 오르는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좀처럼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고병원성 AI 확산세까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까지 고병원성 AI는 전국에서 총 27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가 13건으로 가장 많지만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과 방역 강화 등으로 아직까지 실제 살처분한 산란계 마릿수는 100만마리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산란계 사육 마릿수(7463만마리)의 1.5% 수준이다. 정부는 일일 계란 생산량을 감안해도 당장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산란계 농장이 집중된 경기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대량 살처분과 함께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산란계 사육 농가가 밀집한 지역과 인접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 10개 시군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방역 실태 등 일제 점검에 나섰다. 오는 12일까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지원과 검사 등 방역 강화 조치 이행 실태를 합동 점검한다. 전국 2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위치 확인 체계(GPS)를 활용해 상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용 차량 운영 여부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2단계 소독 조치, 통제초소 설치·운영 등도 집중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들여온 신선 수입란 112만개를 이번주부터 대형마트에 우선 공급한다. 11일부터는 유통업체를 통한 할인 지원도 조기 시행한다.

중소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전환해야"

역량 부족 중소기업 정책적 지원을 병행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정부의 환경 규제에 인한 경영부담이 높아 자율관리형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 730개사를 대상으로 환경규제 이행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규제 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60.3%가 '자율관리형 규제 전환 필요'를 꼽았다. 자율관리형 규제는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의 환경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다. '법령간 중복 규제 해소 및 관리감독체계 일원화(45.2%)', '유예기간 부여 등 규제 대응 준비 기간 보장(29.3%)'이 뒤를 이었다.

조사업체 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300개사) 중 37.3%는 '환경 규제에 경영 부담이 높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72.7%), 화학물질·화학제품(45.3%), 비금속 광물제품(40.9%) 순으로 경영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가 67.3%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자원순환(46%), 폐수(30%) 순이었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을 들었다. 양천회 중소기업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환경규제 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에게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는 등 환경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티웨이항공, 지난해 반려동물 약 3만 3천마리 수송!

탑승권 발급 등 행사진행

티웨이항공이 2023년 한 해 동안 반려동물 특화 서비스 '티펫(t'pet)'을 통해 반려동물 약 3만 3000여마리를 수송했다. 지난해 티웨이항공 누적 반려동물 수송량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총 3만 3천여 건

이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 약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티웨이항공은 기존 반려동물 수송 서비스를 지난 2021년 '티펫(t'pet)'이라는 서비스로 특화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족'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서비스를 활성화하게 된 것이다.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낙영, “APEC 유치… 미래 100년 대계 초석 다져

올해 관광객 5000만 시대 열어도 심경 활성화 행정력 총동원 작년 SMR국가산단 유치 성공 중수로 ‘해체기술원’ 전격착공 대릉원 무료개방 등 핵심성과

주낙영 경주시장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9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지난해 주요성과, 올해 주요 핵심비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SMR국가산단 유치, 중수로 해체기술원 착공,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및 탄소소재 부품리사이클링센터 준공, 대릉원 무료 개방 등을 지난해 핵심성과로 꼽았다.

농촌협약(656억),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490억), 어촌 신활력 증진(100억), 국민체육센터 건립(169억) 등 공모사업 총 35건 선정, 5732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이라고 평가했다.

민권익위 청렴도 2년 연속 1등급, 매니페스토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행정안전부 다산묵민대상 수상 등 총 75개 수상으로 외부 평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을 것이라며 위상을 드높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성과에 이어 주낙영 시장은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소개하며, 경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올해 최대 역점과제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라며, 경주에서 정상회의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마지막 결정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주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지난해 본예산 1조 8450억 원에서 550억 증가한 1조 9,000억 원의 본예산을 올해 편성에 미래 준비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제2 동궁원, 보문관광단지 관광역사공원 조성 등으로 현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과 경주형 e-커머스 활성화로 도심 경제를 부활시키고 중소기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확대 추진으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농업혁신타운 조기 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축수산업에 신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도시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물론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장애인 자립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행복추구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는 지난해 SMR 국가산단 유치에 이어 2025 APEC 정상회의도 반드시 유치해 세계 속의 경주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의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경주의 희망찬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포항 울진
청도 칠곡



울진군, 자동차세 연납
5% 세공공제 받으세요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 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으로, 가상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 연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이경수 기자



청년농업인과 함께
칠곡군수와 간담회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칠곡군4-H연합회는 지난 5일 청년농업인 지원센터에서 칠곡군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칠곡군4-H연합회 임원진을 포함한 청년농업인 20여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청년농업인 지원센터(Young-Makers)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청년농업인 이병곤씨(복삼읍, 29세)는 "이번 간담회는 올해 청년농업인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게 와 닿았다"고 말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청년농업인 지원센터의 모든 행사는 청년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청도소방서, 겨울철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

“불법소각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벌”

청도소방서는 겨울철 부주의로 인한 화재 주의를 당부한다고 9일 밝혔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겨울철에 가장 많은 화재(33%)가 발생했고, 특히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담배꽂초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가 52%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꽂초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지정 장소에 버리기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우지 않기 ▲숯불 향초 사용 시 고정된 받침대 이용하기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청도군도 겨울철 화재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군은 최근 산림연접지 내 논밭두렁 불법소각 행위 증가로 산불발생 가능성이 높아 산불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국에서 매년 평균 536건의 산불이 발생하는데 이 중 영농폐기물이나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불이 연 138건으로 25.7%에 달한다며 산에서 불이 나면 네 번 중에 한번은 이런 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겨울철은 건조한 강풍에 의해 불법소각 행위가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계절로 군은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생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벌을 처하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산로 출입 금지, 입산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 흡연·담배꽂초 투기 금지 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윤재 청도소방서장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작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군민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함께 실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겨울철 화재의 주범 부주의 화재 예방법

- 담배꽂초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지정 장소에 버리기
-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우지 않기
- 쓰레기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금지
- 숯불 및 향초 사용 시 고정된 받침대 이용하기

청도소방서

포항시 지난해 관광객 750만 명 돌파... 역대 최다

스페이스워크, 드라마 촬영지 등 포항 명소 관광객 증가 견인

포항시는 지난 2023년 포항을 찾은 관광객이 759만5029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2년 628만4929명보다 131만여 명 늘어나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관광객 통계 자료는 스페이스워크를 비롯한 포항시 주요관광지 22개 지점의 입장권 판매현황과 무인계측기 등의 자료로 조사했다. 포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19년 '포항방문의 해'를 맞아 사상 처음으로 7백만 명을 돌파한 뒤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세를 그렸다.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신규 관광지 개발과 드라마,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포항 관광지의 지속적인 노출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 방문객 수를 기록하게 됐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포항시에 대한 SNS 언급량도 전년 대비 51%가 증가했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스페이스워크는 지난 2021년 11월 개장 후 2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포항 필수 여행코스 자리 잡으며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난해 '2023 한국관광의 별' 신규관광



지원 분야와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며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스페이스워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촬영지도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동백꽃 필 무렵'의 구룡포읍, '갯마을 차차차'의 청하면, '이 연애는 불가항력의 도심권(칠곡군, 영일대 장미원 등)'으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포항국제불빛축제, 포항칠곡수야행 등 차별화된 지역축제 육성, 관광 트렌드 맞춤형 여행프로그램 개발 및 포항관광택시 운영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 도시로서의 포항의 매력을 알리며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고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창명 기자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속도낸다

자립형 혁신거점 육성 전략사업, 12월까지 조성

울진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울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드웨어사업인 '친환경활력센터'를 2023년 12월 22일 착공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친환경활력센터 구축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구성원인 액션그룹의 활동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울진 왕피천공원 내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153㎡, 건축면적 603㎡ 규모로 체험공간 공유주방, 다목적홀, 스튜디오 등을 조성한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친환경공동체를 통한 활력 넘치는 울진'이라는 비전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70억원(국비 49, 군비 21)을 투입해 친환경공동체 인재양성,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립형 혁신거점 육성 전략사업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친환경활력센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거점이 될 것으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공동체 활동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2024년까지 5년간 총 70억원(국비 49, 군비 21)을 투입해 친환경공동체 인재양성, 역량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자립형 혁신거점 육성 전략사업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친환경활력센터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활동거점이 될 것으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공동체 활동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수 기자

울진, 교육발전특구 아이디어 공모

울진군은 오는 31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2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및 지정 이후, 실효성 있는 특구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유아에서부터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공모 신청 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군민제안·울진군 교육발전 특구에 바란다에서 직접 작성하면 된다. 특구 지정과 교육 분야 관심이 있는 학부모, 군민 누구나 공모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경수 기자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4년 청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시행한다. 특별할인 판매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상품권은 지류, 카드, 모바일 3종류로 운영 중이며, 개인당 통합한도 월 70만원(지류 50, 카드·모바일 70)까지 할인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기준은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조여은 기자

희망특별시 포항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일자리 1,000개 창출, 10,000개 양질 일자리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관광 1,000만 관광객시대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체육 집안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활동해 경제수도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	100세 행복도시

영덕 울릉 청송 영양



오도창 영양 군수는 10일 오전 입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고추)'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10일 오전 남청송농협 안덕지점 대회의실을 방문해 2024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영양군, 건강 생활 행복찬 노후 2024년 신나는 운동교실 운영

영양군보건소는 보건지소·진료소를 중심으로 읍면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신나는 운동교실'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운동이 부족하기 쉬운 겨울동안 건강도 지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화합의 시간이 될 이번 신나는 운동교실은 마을회관 14개소와 건강마을 위원회에서 지역주민 220여명을 대상으로 각 20회씩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1~2회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신나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생활체조 등을 즐기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민 수준에 맞추어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 하기 쉽게 운동할 수 있다. 권윤동 기자



청송, 농민사관학교 현장특화 교육과정(사과) 교육생 모집

청송군은 2024년 경북농민사관학교 첨단기술 현장특화교육과정(사과)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고품질 생산을 위한 선도농업인 맞춤형 현장특화교육을 통해 중·소농 소득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현장특화교육은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실습 및 이론교육 과정으로 개설해 사과(청송)와 포도(영천) 2개 작목을 2024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사과는 청송군 과수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청송군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중 2년 이상 5년 이하 사과 재배경력을 가진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입학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윤병문 기자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준비 본격 돌입

최정상급 선수 16개국 110명 빅매치 기대

청송군은 '2024 노스페이스컵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 및 청송 ICE CLIMBING FESTIVAL'이 지난 6일부터 7일 성황리에 종료됐다.

다다음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준비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국제산악연맹(UIAA), (사)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청송군·경북도산악연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경상북도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리드 및 스피드부분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오는 1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3일에는 리드예선과 남·여 스피드 예선·결선,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남·여 리드 준결승과 결승,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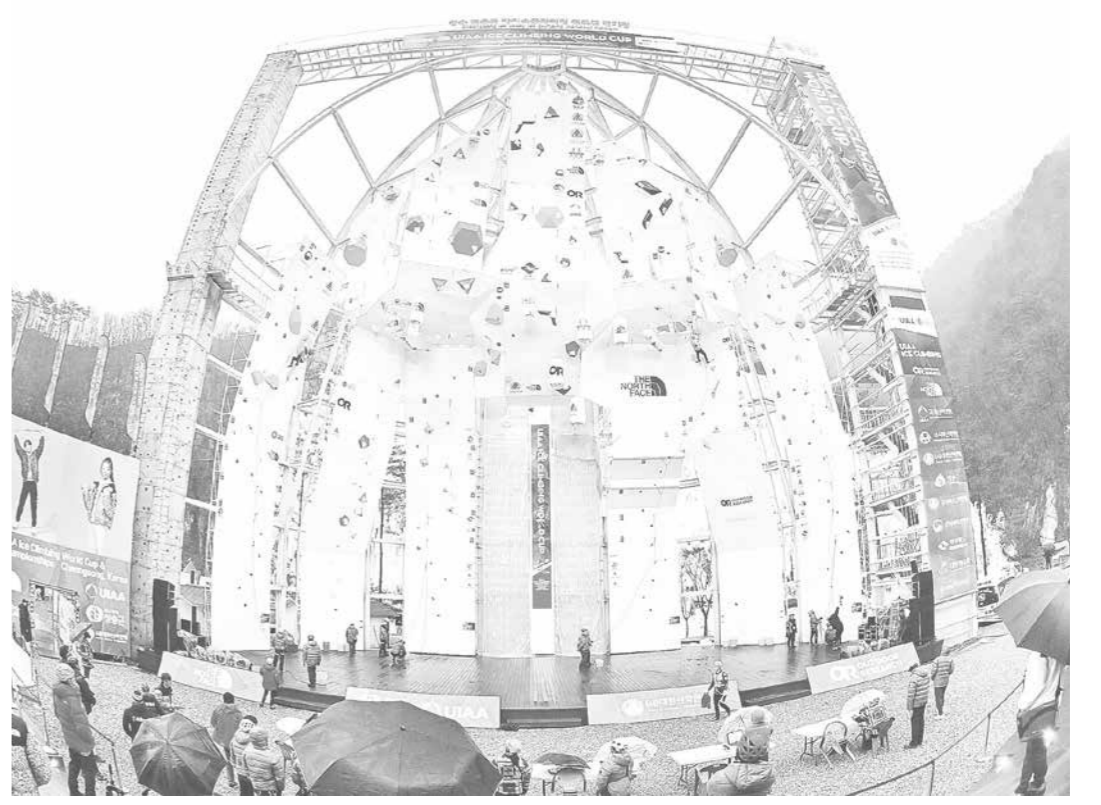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세계랭킹 남자 1위 Mohsen

BEHESHTI RAD(이란)과 여자 1위인 Vivien LABARILE(스위스), 리드 세계랭킹 여자 2위 Sina GOETZ(스위스), 남자 3위 Benjamin BOSSHARD(스위스) 등 세계 최정상급 아이스클라이머들이 참여하며 양명욱(스피드, 세계랭킹 2위), 신운선(리드, 세계랭킹 3위) 등 25명의 국내 최정상급 선수를 포함한 16개국 110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여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대회장에는 청송백자전시 및 관광사진전, 청송 사과무료 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특히 경기장 뒤 얼음벽이 조성되어 있어 청송 얼음골 천혜의 자연을 몸소 느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2011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는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자연경관과 스포츠종목을 연계한 종목 특화로 국제대회 브랜드화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선수와 관중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울릉군-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 가동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대응 방안 논의

울릉군은 지난 8일 울릉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울릉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김진규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울릉형 교육발전특구의 비전과 역할, 모델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두 기관은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모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

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김진규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마련하는데 모든 방면으로 협력해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교육청과 협업하여 차별화된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준비하여 시범지역 지정 공모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신청은 오는 2월 9일까지 진행된다. 정윤환 기자

영양군 서울 영양학사 입사생 모집

영양군은 지난 8일부터 2월 7일까지 영양 출신이면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양학사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2024년 선발인원은 총 22명(여학생 11명, 남학생 11명)으로 지원자격은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5년 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모집 정원 미달 시에는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550(석관동)에 위치한 영양학사는 군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사료 및 사용자 부과 없이 입사생이 사용한 공공금(상하수도요금 등)만 납부하면 된다.

희망자는 영양군청 자치행정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우편,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학업성적·소득수준 등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영양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양군 보건소, 도전! K-POP 방송댄스

어린이댄스교실 프로그램 운영

영양군 보건소는 겨울방학을 맞아 9일부터 31일까지 11회에 걸쳐 청소년 수련관에서 관내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어린이 댄스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댄스 교실 프로그램은 성장기 어린이들의 비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최신 K-POP 댄스를 배우면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간 소통을 통해 사회성과 학업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여름방학에 처음 시작한 K-POP 댄스 교실에서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겨울방학을 맞아 모집인원과 횟수를 늘려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시작 전 보건소 운동지도사가 복부비만 정도와 체질량지수를 측정하고 운동 습관과 건강행태 평가로 개인별 상담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아동 시기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정신질환의 예방, 인지기능의 향상 학업성취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며 "다양하고 즐거운 신체활동에 참여해 비만을 예방하고 활동적인 습관을 형성하길 바란다"라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영덕문화관광재단, 영덕 지역 뮤지션 첫 앨범 발매

영덕문화관광재단, 지역 뮤지션 첫 앨범 발매 영덕송이 소재 창작곡 '내 사랑 송이' 인기 상승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덕군 최초로 지역 뮤지션의 컴필레이션 앨범과 음원을 동시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의생활문화 2023영덕생활 흥한참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 레이블 '영덕레코드'와 함께 진행했던 '영덕생활문화동호회 역량 강화'이다. 다다-과워업 음원제작사업의 산물이다.

본 사업은 영덕에서 활동하는 음악 동아리를 전문 밴드로서 역량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음원 제작을 통해 영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주최하고 영덕레코드가 운영하는 이번 사업은 각 분야 별 청년 전문

가들이 기본교육과 자문, 음반 프로듀싱을 맡아 진행했고, 지역인과 함께 쇼케이스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공연 활동도 함께 했다. 또 맞춤형 A&R(Artists and repertoire 즉 전반적인 사업 기획부터 음반 제작사 운영 및 음반 프로듀싱 담당)까지 더해져 영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꿈을 실현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연말 출시된 [YoungThug Records 1st 컴필레이션 앨범]에는 ▲모던 레게 장르인 '밴드 7 번국도'의 'Natural way to LOVE' ▲레트로 장르인 'The소리풍경'의 '내 사랑 송이' ▲모던 팝 계열인 '밴드 이우주'의 '매미의 계절' 등 다양한 감성의 창작곡 5곡이 담겼다. 그 중 지역특산물인 영덕송이를 소재로 만든 곡, 밴드 'The소리풍경'의 '내 사랑 송이'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음원은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전체 재생이 가능하다.

특히 '영덕레코드'(대표 이의연)는 작년 영덕으로 이주한 6개 청년그룹이 결성한 영덕청년문화협동조합IM에 소속된 단체이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레이블로서 첫 걸음을 떼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탄생했다.

영덕문화관광재단 사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대중음악 문화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역 예술과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펼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자체설계로 예산절감과 역량확대 위한 설계단운영

영양군은 지난 8일 관련 시설직 공무원들과 발대식을 갖고 합동설계단의 운영을 시작했다.

군은 지난 5일 건설안전과장을 단장으로 시설공사 관련 시설직 공무원 26명으로 2024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을 구성했다.

이날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도시개발사업 및 농업 기반사업, 주민 숙원사업, 도로 및 교량사업, 상수도, 하수도 및 관광개발사업, 하천사업 등 6개 반으로 편성해 총 444건(240억 원)의 사업에 대해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양군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인 5월까지 소규모 사업들을 완료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시작해 일제

히 공사를 발주해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반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신규 공무원들이 많은 시설직 공무원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 선배들에게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기술 전수 등을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이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금년에도 우리군의 건설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단을 운영하고 소규모 건설공사를 빠르게 마무리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건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경산 영천
고령 성주



최기문 영천시장은 10일 오전 영천시립도서관 전전에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로 4주간의 어학연수를 떠나는 초, 중, 고 학생 48명을 배웅하며 글로벌 역량 함양을 당부한다.

영천시보건의소, 찾아가는 이·미용 재능기부



영천시 보건소는 9일 지역 사회중심재활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재가장애인들에게 자원봉사자와 함께 방문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방문 재활과 보건소 내 재활운동실 운영, 특화된 장애인 재활운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고령군-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고령군은 지난 8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고령군청공무직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4년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도 입이다.

노사간 소통,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과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협약 체결식은 2023년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된 12차례의 교섭 및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에 대하여 최종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행사로 대표 교섭위원인 군수 및 노동조합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배영백 기자

황금빛 릴레이 시작 '성주참외' 올해 첫 출하

조수입 6천억 시대 개막... 농가소득 본격 출하 준비 중

성주참외는 성주군의 효자농산물이다. 세계 최고 품질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성주참외가 9일 첫 출하됐다.

전국 참외 재배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지난해 역대 최고 조수입 6천억 시대를 개막했다.

올해도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본격 출하를 준비 중이다.

이날 출하된 성주참외는 성주군 월항면 김재규(63세)농가에서 지난해 10월 25일 정식해 추운 겨울을 이겨낸 참외다.

현지에서 박스당 평균 11만원에 월항농협을 통해 롯데마트로 총 80박스 납품됐다.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달콤하고 아삭한 성주참외만의 매력을 발산해 입맛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성주참외는 스마트팜 농법 확대와 농가의 재배 기술 향상으로 연중 고품질 참외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조기출하 물량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올해도 최고 당도의 성주참외 생산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다른 지역은 따라올 수 없는 맛과 향을 가진 성주참외가 올해도 달콤한 시작을 하고 있다. 세계의 명품 성주 참외의 명성을 꾸준히 이어 나가기 위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지원을 확대·편성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전국 최고 부자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도재훈 기자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에 이은 영천(금호) 연장 확정

경산시 신설역 1개소 포함 역세권 희망



경산시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금호)연장사업(이하 영천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산시 구간에 도시철도 신설역사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천연장사업은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사업(이하 하양연장사업)을 영천시 금호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신설역사 2개소 중 가칭 Y1역은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동서교차로 인근에 Y2역은 본 사업 종착지인 영천시 금호읍에 설치될 예정이다.

정이다.

동서교차로 주변 지역은 하양읍 시가지 근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돼 주변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꾸준했는데, 영천연장사업이 확정되면서 현재 동서교차로 인근지역에 추진 중인 국도 4호선 확장, 동서교차로-상림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더불어 경산시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경산지식산업지구, 동서교차로, 경산일반산업단지, 압량신대부지지구, 영남대역을 잇는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화 사업이 가시화되면 양질의 교통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된다.

하양연장사업 추진 시 건설된 2개역 인근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 국도 4호선 도로, 대구선 철도, 국가하천(금호강) 등이 입지하고 있어 역세권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으나, 영천연장사업 신설역사(Y1) 인근지역은 교통인프라가 뛰어나고 활용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상당히 역세권 개발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추진 중인 하양읍 대하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의 경산지식산업지구 및 진량읍 상림리

일원의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의 입주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산업단지 조성이 예상되며, 인구 유입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시철도 이용객들을 위한 환승주차장 건설로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주민들과 특히 대구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향상이 예상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영천시 관계자 및 영천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연장사업을 포함해 동서교차로 인근에 추진 중인 도로, 철도사업이 완료되면 동서교차로 주변은 경산시 최고의 교통 메카로 발돋움한다"며, "새롭게 건설될 Y1역 주변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산시 인구 30만 시대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연장 사업은 총연장 5.66km, 신설역사 2개소 건설로 총사업비 2,341억원을 투입해 2029년 사업 완료 및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경운 기자

성주 선남면, 불법쓰레기와 전쟁

성주군 선남면이 '불법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8일부터 배한수 부면장지휘하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정화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단속은 연중 실시할 예정이며, 배한수 부면장 및 관계자들이 직접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단속하며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정화활동도 겸한다고 한다.

선남면은 단속을 한시적으로 끝내지 않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투기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면민에게 심어주겠다는 목표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행정기관에서 민간 불법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면민여러분의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참여가 절실하다"라며 선남면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집중단속 등을 펼쳐 면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선남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4년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운영

고령군은 지난 8일 군청종합상황실에서 시공공사 관련 공무원 38명으로 구성된 '2024년 건설공사 합동설계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1개월 동안 건설공사실시 설계용역 및 자체 설계 등 합동설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설계단 운영을 통해 상호간 실무 지식과 기술 전수, 경험 공유로 시설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합동설계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설계 완료 즉시 사업을 발주해 사업의 조기집행은 물론, 자체설계에 따른 설계용역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 군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영백 기자

영천시, 2024년 인사이동 신입부서장 업무보고

시정 핵심 중점사항 파악...



영천시는 1월 인사이동에 따라 신입부서장 22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시장실에서 주요업무 보고회를 실시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최기문 시장의 주제로 각 부서

장과 주무담당이 참석하는 가운데 부서별 주요 시정 현안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일상 속 편의를 높이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정책기획실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부서별 업무 보고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계사업과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 이전, 지방시대 과제 발굴 등 정부와 도정 방향에 발맞춘 대응전략을 모색해나간다. 또한, 지난 5일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종 통과됨에 따라 2030년 도시철도 1호선의 성공적 개통을 목표로 역세권 개발, 대중교통 전면 개편 등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민원서비스 향상, 악취 저감대책

마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등 시민 체감 효과가 큰 시책들과 생활 속 불편 해소 방안들에 대해 보고될 예정으로, 2024년을 맞이한 신입부서장들의 남다른 각오가 기대된다.

앞으로 영천시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과제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갈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정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과의 열린 소통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Together GyeongSan

기업하기 좋은 경주시

첨단산업도시

일자리가 많은 활력 넘치는 경제, 미래의 꿈이 자라는 일등교육 조상의 얼이 깃든 찬란한 문화,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경주시가 21세기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경산시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예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예천군 건강수칙 홍보

예천군은 전국적으로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 준수 홍보에 나섰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이며, 대처가 미흡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64%로 가장 많으며, 저체온증이 9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한파 특보 등 기상예보를 확인하고 외출 시 내복이나 장갑, 목도리, 모자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에 비해 체온 유지에 취약하므로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군은 군민들 건강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한랭질환 주요 발생 특성 정보제공, 피해 발생 파악 등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한랭질환은 평소 예방건강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병욱 기자



구미 '마음이음 우체통' 손 글씨로 희망 나눠요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민의 우울을 예방하고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손 글씨로 희망을 나누는 '마음이음 우체통'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마음 건강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알렸다.

지난해 하반기 삼일 문고와 도서관 6개소(중앙, 봉곡, 상모정수, 인동, 양포,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에 우체통 구조물을 설치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비치된 마음이음엽서는 △자인에게 보내는 안부 엽서 △ 스스로 응원하는 위로 엽서 △ 상담을 요청하는 도움 엽서로 세 가지다. 나와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김희숙 센터장은 "마음이음 우체통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손 글씨로 나와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쉬어가길 기대하며, 필요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건강 서비스로 도움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은진 기자



상주 꽃감등 커졌다...꽃감축제 앞두고 열기 고조

상주꽃감축제 12일 막 올라 꽃감등 점등으로 성공 기원 베트남으로 올해 첫 수출도

꽃감의 대명사 상주시는 꽃감 축제와 함께 올해 첫 수출로 감진년을 맞이했다.

'상주GOAT감의 품격'이란 주제로 '2024 상주꽃감축제'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상주시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꽃감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상주꽃감발전연합회가 후원한다.

지난 5일 꽃감등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고 '2024 상주꽃감축제' 성공을 기원했다.

상주시장을 비롯해 상주시의회 의원, 상주꽃감발전연합회, 상주꽃감축제추진위원회, 시청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꽃감등은 편도 2.4km(왕복 4.8km)로 상주시청에서 축제행사장인 북천시민공원까지 이어지며, 가로수에 수놓은 꽃감등이 축제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상주시민 A씨는 "상주시청에서부터 가로등에 수놓은 꽃감등을 따라가다 보면 상주꽃감축제 행사장까지 가게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밤에 가족끼리 산책하는 거리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였고, 다른 B씨는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해도 이 좋은 꽃감등을 떼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12일에는 임금진상재현행사, 개막식, 박서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일차는 상주꽃감노래자랑, 김연자 공연이 있다.

마지막 날에는 오송근 공연으로 폐막식이 진행된다. 상시프로그램으로 상주GOAT감 라이브커



머스, 감-자바스! 상주GOAT감 특별경매, 상주GOAT감마켓, 눈썰매장, 인형극장, 전통놀이체험장, 겨울간식코너, 구이마당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이 많이 있다.

이번 축제는 42개 꽃감농가부스, 66개 일반부스가 참여하는데 운영자들이 단체로 호랑이 옷을 입고 참여해 '호랑이와 꽃감'이란 이색적인 광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꽃감축제 성공기원 점등식을 통하여 상주꽃감의 본 고장임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한편 상주 꽃감이 올해 첫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9일 남상주농협(조합장 윤석배)은 회원 농가,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 꽃감 베트남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수출길에 오른 꽃감은 1t(3000만원 상당)으로 수출업체 푸드아래나(대표 김장호)를 통해 베트남

하노이로 수출했다.

청정 상주 지역에서 60여일 동안 건조와 숙성 과정을 거친 상주 대표 특산품이다. 풍부한 영양 성분과 높은 당도로 사랑 받고 있다.

상주 꽃감은 국내 생산량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동남아 등 해외 각국으로 수출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박호진 유통마케팅과장은 "상주 꽃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꽃감의 본 고장 자리매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축제는 여럿이 함께 즐기는 것이므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화합해서 즐기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이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2024 상주꽃감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예천 신도시 연결도로 감응신호체계 구축 완료

스마트하게 교통 흐름 획기적 개선

예천군은 지난해 신도시 연결도로 교차로에 감응신호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감응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영상으로 감지하여 상황에 맞는 신호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스마트한 신호체계다. 신도시 연결도로의 경우 직진 방향 통행량이 많고 좌회전 및 보행자 통행량이 적어 정기적인 신호체계를 적용할 경우 불필요한 좌회전 및 보행신호로 인해 통행량이 많은 직진 차량의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은 2022년 신도시 연결도로 4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를 도입해 교통흐름 개선 효과를 높였다.

지난해 9개 교차로에 감응신호체계를 추가 구축하여 신도시 연결도로의 교통 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감응신호 도입으로 예천읍-신도시 간 출퇴근 시간이 5분 가량 단축되었으며, 예천읍-신도시-지리보내-어신리로 이어지는 신도시 연결도로 전체 차량 흐름이 좋아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였다.

신도시에서 예천읍으로 통근하는 이 모(32세) 씨와 신도시에서 지리보내로 통근하는 정 모 씨(46세)는 "차가 없는 교차로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던 시간이 줄어들어 기분 좋게 출퇴근 할 수 있다"며 감응신호체계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한편 예천군은 올해 국도 34호선 내 교차로(비행장, 장송리)에 감응신호체계 도입을 위한 국비 3억 원을 확보해 신도시 연결도로 갈등교차로에 감응신호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스마트한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욱 기자

구미시, 전국 우수 유도선수 동계전지훈련 유치

6일간 530여명 선산 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보탬 될 듯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미 홍보를 위한 전국 우수 유도선수 선산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했다.

선산 동계전지훈련은 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여자 유도국가대표팀, 안산시청, 중·고교 35팀 등 전국에서 37개팀, 530여 명이 선산체육관 일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유치에는 지역의 유도 명문 도계중고 유도부 김대봉 감독의 역할과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구미시와 구미체육회(회장 윤상훈)는 선수단을 위해 선산체육관과 선산체육공원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훈련장 격려 방문, 훈련용품과 응급구호 인력 지원, 숙박업소 점검 등 선수단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산읍과 선산읍 체육회(회장 이금호)는 선산C 입구, 주요 시가지 등에 환영 현수막 30



여개를 게첩하고, 시가지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선산을 찾아준 유도 선수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앞으로 선산이 유도 전지훈련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구미를 찾은 유도 동계 전지훈련팀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선수들을 비롯한 선수 가족들도 함께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미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기자

김천시 국·도비 예산 역대 최대

올해 6788억원으로 398억 증가 사회기반시설사업 청신호 켜져

김천시는 역대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해 기반시설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4년 정부 예산 확정에 따라 6788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와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3년보다 398억 원이 증가한 678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국·도비 확보로 지역의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시에서 확보한 주요 국책 사업은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거듭나기 위한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2377억 원, △중부 내륙철도(김천-문경) 건설사업 30억 원, 국도 59호선(김천-구미) 확장사업 40억 원과 전년도 12월에 개통한 국도 대체 우회도로(옥골-대룡)의 마지막 구간인 △양천-대항 국도 대체 우회도로 20억 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도안전교육원 150억 원 등으로 향후 물류비용 감소, 지역의 균형개발 등

효과가 기대된다.

금년도 확보한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생활기점 사업 28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2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15억 원 등으로 부족한 생활 기반 시설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0억 원 △평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5억 원 △울곡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30억 원 △부항면 사들리·월곡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 원 등으로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게 됐다.

이외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 특구 18억 원 △전통 한옥촌 조성 사업 13억 원 △만다네어울림센터 건립 10억 원 등이다.

홍성구 부시장은 "지역구 의원인 송연석 국회의원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하여 역대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작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 확충과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고사리손으로 이루는 큰 사랑 김천 다솜어린이집 성금 기탁

다솜어린이집이 김천복지재단에 9일 이웃돕기 성금 6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이웃에 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기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베품시장과 겨울 먹거리 장사 등의 행사를 통해 마련했으며, 다솜어린이집은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임현정 다솜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기부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매년 나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추운 겨울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희 복지환경과장은 "오늘 전달해주신 성금



에는 아이들의 예쁜 마음이 담겨 있는 거 같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라며 "오늘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이해할 기회가 되어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김천형 사회 기반 시설(SOC) 긴급 지원사업, 희망복지공동체 지원사업, 맞춤형 후원 결연사업, 복지 차량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며 지역 주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안동 영주
봉화 의성

봉화군보건소, 갑진년 연초부터 바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10일 오전 소통실에서 안동시 각 국으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고 시민을 위한 시정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10일부터 18일까지 체코 등 동유럽 일원에서 열리는 동유럽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홍보관 운영 사업에 참석한다.



의성군, 고향사랑기부

의성군의 신덕순·김송희 신안상사 대표 부부가 2024년 의성군 고향사랑기부금 고액 기부자 1호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일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대금액인 500만 원을 각각 기탁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신안상사는 단밀면 단밀농공단지 내에서 쌀 가공기계설비 업체를 운영하며, 이익의 1%를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모범기업이다.

박재성 기자



안동시 농정시책 '한눈에'

안동시는 주요농업 정책과 농축산 보조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농축산보조사업 안내 책자'를 지난 2일 4000부 발간해 배부했다.

책자는 총 120면으로 농업의 정책목표와 중점 추진과제를 시작으로 146개의 농축산분야 지원(보조)사업을 상세히 담고 있다.

지원사업은 부서별로 구분해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최준길 기자

지역주민 치주상태 개선사업 실시
새해 건강증진사업 홍보 캠페인

봉화군보건소가 연초부터 주민의 건강을 챙기느라 바쁘다.

보건소는 개인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과 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교육·불소도포 등 지역주민의 치주상태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연중 관내 치과의원 4곳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시술받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에 준하는 상품을 제공해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진료환자 발생이 많은 질병순위를 집계한 결과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급성기 관치염(감기), 고혈압을 제치고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치과내원의 어려움 등 치주질환을 중심으로 구강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봉화군보건소는 봉화군민의 치주상태를 개선하고 스케일링을 통한 치주질환 예방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사업 내용으로는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관내 치과의원 4곳 건강보험적용 스케일링 시술 △치과의원 스케일링 확인쿠폰발급 △봉화군 보건소 2층 치과진료실 방문 후 본인부담금에 준하는 상품수령 △개인 맞춤형 치주관리방법·구강 위생용품 사용법 교육 및 불소도포 등이다.

한편 2024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에 맞춰 건강증진사업 홍보 캠페인 및 이동 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교육기간에 맞춰 캠페인을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 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및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 홍보,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운동상담, 구강관리교육,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 및 예방수칙 등을 홍보한다.

또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클리닉 등록을 유도하고 금연상담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손은지 보건소장은 "치주질환은 치매, 뇌혈관질환, 당뇨 등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치주질환 예방과 더불어 치주건



강 유지·관리에 근간이 되는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인별 맞춤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봉화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건강증진사업 홍보 캠페인 추진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3월 관내농가 배치에 차질없도록 최선

의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입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만전을 기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 단축을 위한 것으로 오는 3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하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비자유형에 따라 일부 상이한데

MOU(E-8-1, C-4-1)는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숙소점검확인서 등·어업 종사 이력 입증서류 등이다.

결혼이민자친척 초청(E-8-2, C-4-2)은 여권사본, 결혼이민자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척관계도 등이 있으며 이를 비자포탈 내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게 된다.

군은 지역의 고령화 및 부녀화에 따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캄보디아(2019. 4), 필리핀(2022. 10)과 MOU를 맺고, 관내 결혼이민자 친척

을 초청하여 일손을 돕는 등 농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수요농가가 매년 증가했으며 군은 법무부에 2024년 상반기 배정인원을 전년 대비 75% 증가한 448명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오는 3월부터 관내에 들어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덕분에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농번기 시작에 앞서 적기에 근로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안동시, 명품관광거점도시 조성에 박차

안동시가 1000만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2023년 한 해 안동시는 명품관광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개교'의 정신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선유줄불놀이 상설공연화'로 마지막 공연에는 4만 5천 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경북전통주문화대축제', 'K-Foods 해외 현지 음식 축제 참가' 등 관광 활성화와 관광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특히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 '경북 바이지'를 개발해, 경북지역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여행지, 숙소, 음식점, 체험, 쇼핑 등의 정보제공과 실시간 예약 및 결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역 관광기념품 판매소 및 여행자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관광거점센터 조성, 안동호를 활용한 ▲마리나리조트 및 수상레포츠 단지 개발, 폐선부지를 활용한 스테마화거리 조성사업, 구안동역을 활용한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지역 특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상 공연장 조성, △미디어파사드 연출, △야간경관 콘텐츠 강화, △염마카투리 야영장 및 상상놀이터 등 이색적인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매력을 선사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확대

열차관광객 35명 이상 50만원 지원

영주시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사전 계획서 제출 생략 등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하고,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숙박비 지원을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에 따라 열차관광객 35명 이상이 영주지역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시 5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도 신설해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상 여행업 등록 여행업체이다.

지역 내 관광지 방문,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전통시장 방문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비 또는



차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일 관광은 지역 내 유료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이상 이용할 경우 1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30만, 35명 이상 열차관광객은 차량비 50만 원, 2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25만 원, 30명 이상 버스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숙박 관광은 1박 기준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 15명 이상 관광객이 숙박업소 1개소, 유료 관광지 1개소, 음식점 1개소, 전통시장 1개소 이상이

유하면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5000원, 지역 내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여행업체는 여행 완료 후 21일 전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급신청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된다.

인센티브 지원금은 해당 여행일 이후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된다.

인센티브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시 관계자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들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영주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해 영주시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Large advertisement for '영주여행' (Yeongju Travel) featuring a smartphone displaying travel information and a scenic background of a lake and mountains. Text includes '힐링이 필요한 순간 스마트하게 즐기는 영주여행' and '지금 바로 스마트폰 마켓 or 앱스토어에서 영주여행 | Q 을 검색해보세요!'.

꿈나무야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 남·여 통합)
 -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 일반부 - 신페리오
 -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불)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